신안군 580억 공사 발주 방식 논란

방조제 무더기 입찰 … 전문건설업으로만 제한

응찰 기한도 촉박, 종건업체 "법규무시" 반발

신안군이 무더기 긴급 입찰 공고한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파문이 예상된다.

25일 신안군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등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안군이 24일과 25일 이틀간 57건 580억원대의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무더기 입찰 공고했다.

신안군은 공고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석공사업 등록한 자로 제한했고, 입찰 공고일로부터 7일에 불과한 '긴급 입찰'로 발주했다. 또 추정가격 7억원 미만의 공사는 전남 업체로 지역제한하고, 7억원 이상은 지역의무도급 40%를 적용한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입찰 자격 업종 판단은 발주기관의 재량"이라며 "주 공정이 석공사업으로 판단해 전문건설업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긴급 입찰의 경우도 지난해 예산이 명시이월된데다, 정부시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권장하고 있어 긴급 입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협회 전남도회와 종합건설업체들은 "신안군이 발주한 '방조제 공사'는 2개 공종이 복합된 종합건설업 영역"이라며 "전문건설업인 석공사업에 입찰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안군이 24일과 25일 공고한 '도초라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 등 57건(총 사업비 약 580억원)의 방조제 공사는 석공, 토공, 철근콘크리트, 기타 부대공사 등 2종 이상의 복합공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상 토목공사업에 해당한다"며 "2개 공종 이상이 복합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들을 전문건설업자에 한해 입찰 자격을 부여한 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회는 "더구나 입찰공고일로부터 마감일이 7일에 불과한 '긴급 입찰' 형식으로 57건의 공사를 무리하게 발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등 입찰질서를 바로잡으려면 이번 공사의 참가자격을 종합건설업으로 변경해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회는 "특히 투찰 기간 4일(28일~31일) 가운데 주말과 휴일이 끼어 있어 실제 투찰일은 이틀에 불과한데다 태풍 등 계절적 긴급 사항도 없다"며 긴급 입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전남도회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전문건설업이 아닌 종합건설업으로 공고를 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으로 입찰 공고할 경우 7억원 이상이면 지역제한이 불가능하지만, 종합건설업으로 공고하면 100억원 미만은 지역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공고를 분석하면 전체 57건 580억원 가운데 7억원 이상 공사가 28건 450억원에 달해 방조제 공사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경쟁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光銀 순천법조타운지점 오픈

26일 광주은행은 순천시 왕지동 순천법조타운에서 송기진 은행장을 비롯해 정병휘순천시의회의장, 정경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법조타운지점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인 창조기업' 23만개 돌파

IT 진출 늘고 정부지원 효과 전년보다 15.7% ↑

지난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확산 등에 힘입어 1인 창조기업 수가 23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은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지칭한다.

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창조기업 수는 23만5000개에 달했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1%를 차지하는 규모로, 2009년(20만3000개)보다 15.7%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 등 1인 창조기업들의 진출 영역이 커진 데다 정부가 청년창업 진흥책을 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모바일을 포함해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4%에서 지난해 23.1%로 대폭 증가했다. /연합뉴스

작년 中企 신설법인수 6만312개…8년來 최고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신설법인 수가 6만312개로 작년보다 6.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별 신설법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다.

업종별 신설법인 수는 제조업이 전년에 비해 5.5%, 서비스업이 8.9% 늘었고 지역별로는 전남과 부산,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신설법인 수가 증가했다.

사업주가 30대 미만인 신설법인의 수가 전년 대비 29.0%나 늘어났고 남성(4.8%)보다 여성(11.2%) 창업의 증가율이 높았다. /연합뉴스

진로 '광주전남 사랑기금' 1천700만원 기탁

(주)진로 (대표 윤종웅)는 26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참이슬, '광주전남사랑기금 4차 조성금' 1702만3260원을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이호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백관흥 (주)진로 호남본부장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에 기탁했다. 〈사진〉

(주)진로는 참이슬 '情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일환으로 2010년 1월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 조성목표액 2억원 달성 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4차에 걸쳐 기탁된 6940만 2180원은 2010년1~12월까지 1년에 걸쳐 조성된 사랑기금으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우리지역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주)진로는 광주전남 사랑기금 2억원 조성, 진로 情나눔 참이슬 봉사단 운영, 광주천 가꾸기 사업 참여, 우수고객 사은행사, 소비자 초청 영화시사회 진행 등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통신 모듈업체 이스트포토닉스 2014년까지 40억 투자 고용창출

광주시·테크노파크 공동 유치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26일 광통신 모듈 업체인 (주)이스트포토닉스(대표 석호준)를 광주시와 공동으로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스트포토닉스는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입주 업체로 그동안 광주시 광통신 부품업체들과 협력해 광통신 모듈을 주제품으로 개발·생산해왔다.

또 렌즈·크리스털·광학 필터 등을 사용해 광경로(Optical Path)를 설계하고, 자동화된 생산시설을 활용해 고품질의 모듈을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트포토닉스는 FTTH(가정내 광케이블) 상용화, HD(고화질)급 TV 송신 및 방송 융합서비스 등 최근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 맞춰 고품질의 광통신 모듈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초기지로 광주테크노파크 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스트포토닉스는 오는 2014년까지 시설·장비 등에 40억원을 투자해 60명을 고용할 계획이어서 고용 창출과 지역 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호준 대표는 "광주시의 광산업 육성 및 외지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한국광기술원 등 광 관련 연구기관의 장비·인력 등 산업 인프라가 튼튼해 광주로 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110.46 (+23.79)
▲ 코스닥지수	524.71 (+1.75)
▼ 금리 (국고채 3년)	3.88% (-0.02)
▼ 원·달러 환율	1,116.00원 (-2.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물가 '빨간불' 켜졌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3.7% … 18개월만에 최고치

계속되는 물가 불안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13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7%로 전달보다 0.4%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09년 7월(3.8%)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3.0~3.4%에 머물다가 새해 들어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범위(3±1%) 중심치를 넘어선 것이다. 향후 물가가 3.5%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의 비중은 전달 32.9%에서 이달 55.7%로 급증했다. 또 소비자의 29.5%는 물가 상승률이 4%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준치 100) 가운데 6개월 후의 물가수준 전망 지수는 작년 12월보다 13포인트 급등한 153으로 2008년 7월(160)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전방위 물가 대책에도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구제역, 한파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달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지 주목된다.

경기 상승세 둔화 전망에 따라 전체 CSI는 작년 11월 110에서 12월 109, 올해 1월 108로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이중 현재 경기관단 CSI는 88로 전달보다 7포인트, 향후 경기전망 CSI는 97로 8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 CSI는 90, 생활형편 전망 CSI는 98로 3포인트씩 낮아졌다.

/연합뉴스